

# 구정물을 맑은 물로 대치해서 쓸 줄 알아야

## 25면에서 계속

뜻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이 교입니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한 귀퉁이에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삼천대천세계가 그대로, 우주 세계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백일기도를 드리겠다고 왔어요. 그대 내가 그랬어요. 지구가 백 일만 돌아고 그 뒤엔 안 돌아가겠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왜 백 일만 생각을 하느냐. 무한한 한생각에, 그 깊은 가슴속에, 벼락이 치고 물바다를 이루고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내 가족 속에다가 불을 켜다면 쉬고 자시고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원히 불이 밝아질 텐데 하필이면 왜 백 일만 불을 켜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것도 거죽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정성스럽게 불을 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자기가 촛불을 켜고 또 자기가 등잔에다가 불을 켜고 이러한 것도 아닙니다. 전기요 만하게 해서 갖다가 이름 붙여 놓고 불켜 놓고 만당행그런이로 그냥 돈만 훔쳐 내밀고 가 버리는 거죠. 이것도 정성입니까. 모두가 도깨비장난이지 진실한 인간으로서 행동하는 법이냐이 소립니다.

전 세계도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도 내가 보니까 교회당이 좀 드문드문 있었어요. 비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성당이 드문드문 비어있더라고요. 그대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본토박이 사람들은 안 나오고, 흑인하고 교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운영이 되질 않고 그래서 그걸 내놔요. 그걸 사라." 그대요 그리고 그 양반들과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얘길 해보니까요, 정신계를 연구한답니다. 그대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뉴욕에서 이름 있는 가톨릭교 기독교 소인자들이 한 강당을 잔뜩 모여서 나를 불렀어요. 그럴 때 우리 뉴욕의 신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스님, 가시면 쫓겨납니다." 이거예요. 그대 "왜 그러느냐?" 하니까 뉴욕에 어떤 스님이 한 번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죽으면 한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쫓겨나면 어떻게 안 쫓겨나면 어때냐?" 하고 들 어갔죠. 그래서 불교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 한쪽에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라 전체가 불교라는 자체와, 케네디 대통령 묘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불이 올라오는 그 뜻을 얘기했고, 모든 것을 손 살피 얘길 했는데 너무나 기뻐하고 이런 말씀은 듣지 못했다고, 많은 양식을 얻었다고 하면서 좋아서 노비를 두둑하게 주고 먹은 것도 넉넉하게 해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내뿜기기는커녕.

그러니 이 못한 사람이 말을 해도 진리는 하나 이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네들도 진리가 하나인 것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가톨릭교인 티베트불교도 알라신교도 여러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그전에 독일에서도 세미나가 한 번 있었고 산호세에도 한 번 있었고 이렇게 모두 세미나가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그게 아니에요. 또, 그럴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가 기복이예요. 타의에서 구해요. 좀 자 의에서 구하면

어때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있는 거지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었어요?

그러서 사대 성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서 너부터 찾아라. 그대야 일체 세계와 우주를, 그 섭류를 다 알 수 있느니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만 불(萬佛)이 안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불(一佛)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공부를 하세요. 만 불이 있다 하더라도 일 불로 볼 수 있고 네모가 찢더라도 둥글게 쓸 수 있고, 아무리 낫잖아 하더라도 내 모습같이 볼 수 있고, 아무리 하찮은 미생물이라 할 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말입니다.

오계의 제일 처음에 불살생이 있지. 나는 어떤 때 텔레비전에서 산 거를 지느러미는 칼로다가 속 도려내고 그냥 각을 따서 써는 걸 보면요, '아휴! 예전에 나도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거쳐 올 때에 그 모습이 돼 보지 않았을까. 그 모습이 됐을 때 나도 저랬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의 세계에서 자연의 조물주가 창조하는 거는, 우리가 콩을 심어서 싹이 나면 창조입니다. 창조가 발달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뱃을 때는 바로 우리가 창조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생선이 됐으면 창조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수억겁을 거치면서, 광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거치면서 거듭거듭 몸을 바꿔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진화를 해서 인간까지 왔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이 여섯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가 100%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한테 그냥 갖다가 놓고선 빌어요. 기도한다고 그러죠. 나는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네 자신을 네 자신으로, 주인공 뿌리로 알고..."

니까 이다음에 기법하는 의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제 걱정이 없을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아십니까? 씨앗을 봄에 심듯이 그 종자를 산하대지에 묻어 주는 겁니다. 묻어 줘서 그 싹이 나게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귀신을 보지, '귀' 자를 하나 써서 그렇다는 거죠. 아수라장을 만들며 마구니질을 하는 사람도 한생각을 돌리면 선신인데 한생각을 못 돌려서 마구니죠. 그래서 귀신이나 선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 자는 똑같이 귀신 신(神) 자를 쓰셨죠? 하여튼 모든 종자들을 한데 모아서 봄을 만들어 놓고 봄씨를 산하대지에 뿌려서 그 싹들의 아주 불쌍한, 부모가 울고 자식이 울었던 그 시연들을 방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에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서 훌륭하게 나라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고, 부모자식기간에도

를 놓았고요, 심지어 이혼까지 하려는 부부싸움도 저하고 두 시간의 대화로 봄은 녹듯 녹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힘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힘을 얻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신을 봤거든요. 그럴 땐 또 한생각이 '일체가 그 지리의 나뭇잎을 밟고 세세하게 체험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자지 뭐 또 나를 세우고 알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근본에서 나온 길잡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하다가 '그대' 하고 편해지곤 했지만요, 변변히 해답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큰스님 : 감사해요.

질문자(여) : 이 자리를 빌려서요, 점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스님, 이 법을 알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어떤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많이 붙이는 듯합니다. 뭐가 잘되면 마음공부를 잘해서고 뭐가 잘못되면 마음공부를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 그것이 아니에요. 잘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고 답답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되잖아 '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리고 거기다 놓고, 또 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그렇게 하면 잘나잘나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가 '아이구, 안된다.' 그럴 때, 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내릴 때를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또 탈 때를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타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내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틀어 안인 까닭이죠.

질문자(여)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법회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문하실 법우님들이 아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 법문은 1995년 3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 음 선 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깊은 가슴속에,  
벼락이 치고 물바다를 이루고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내 가족 속에다  
마음의 불을 켜세요



진짜니까 불성의 뿌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모든 것은 거기에,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바깥에서 부딪치며 닦여오는 거든지 모든 것은 거기에 놓고, 내가 구정물을 맑은 물로 대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굴림을 그대로 잘 배우셔서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내 몸도 큰 살림살이입니다. 이 몸 안도 큰 살림살이기에 때문에 우주하고도 맞먹고 은하계하고도 맞먹습니다. 보기에 작아서 그렇죠.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내에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입력어 돼 있는 겁니다. 그 섭류를 아시려면 내 영원한 친구며 내 영원한 아버지며 내 영원한 부처며 내 영원한 불성이며 내 영원한 주인공인 그 자리에서 모두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나를 믿고 모두 그 자리에서 되돌아볼 줄 알고 되돌아볼 줄 알고 거기서 참나를 탄생시킬 줄 알고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낮은지 높은지 무조건, 오늘 이 천도는 정말 무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천도를 했으

하... 뭐, 어느 끝 하나만을 붙잡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충대충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다음에 자세히 또 어떤 거를 붙들고 좀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두서너 분 하시고요.

질문자(여) : 저는 대구지원 청년회 회원입니다. 제가 처음 스님을 보였을 때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정말 작은 스님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의 큰 스승님이시고 길잡이입니다. 처음 이 법을 만났을 때 스님 법문이 저에게겐 자장자였을만큼 지금도 따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아! 이 말씀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아졌고 지금은 스님, 너무 사랑합니다. 스님, 제가 이 법을 만나고부터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모든 게 엮여졌습니다.

또 누가 힘들어하고 고달플 때 말씀 한마디 전하는 것이 그대로 광명의 법이고 힘을 느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한 30분만 얘기하면요, 금방 목소리가 밝아져서 수화기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 반신욕기는 웃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잖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가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했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햇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햇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제작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지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검사액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물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